

# 광주·전남 공사들 태극마크 '정조준'

### 양궁 2차 선발전·킴파운드 국가대표 선발전... 20~26일 국제양궁장 올림픽 금 안산·기보배·이진용 3관왕 이승윤 등 남녀 64명 열전

광주·전남 양궁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광주에서 시위를 당긴다.

양궁 국가대표 제2차 선발전과 킴파운드 국가대표 선발전이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주시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64명이 참가, 열전을 벌인다.

이번 2차 선발전에는 광주·전남 공사 8명이 출전한다.

남자부에서는 지난해 창단한 남구청 유니폼을 입고 2021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이승윤이 태극마크 수성에 나서며 세계유수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진용(조선대)은 생애 첫 아시안게임 태극마크 도전에 나선다.

여자부에서는 1차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이은경(순천시청), 올해 광주여대에 입학한 오예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 여자대학부 절대강자 김민서(광주여대),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이 출전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 장혜진(LH)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

을 거머쥔 이은경은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도전을 이어가며, '광주여대 3인방' 안산·오예진·김민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회 연속 배출'이라는 새 역사를 쓴 광주여대 명예와 전통을 이어간다는 각오로 사대에 선다.

안산과 오예진은 수성을, 김민서는 생애 첫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기보배와 최미선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자존심을 걸고 부활을 향한 시위를 당긴다.

이들을 포함한 선수들은 20일 1회전 1차 기록경기(70m·36발)를 치르고 21일 토너먼트, 22일 토너먼트-리그전, 23일 15발(70m 3발 5세트) 기록경기를 진행한다.

이날 1차 선발전 포함 1~3회전 배점 합산으로 남녀 각 8명씩 모두 16명이 가려지게 된다.

이후 24~25일 토너먼트, 26일 리그전·15발 기록경기를 치르고, 16명 선발 역배점과 4~6회전 배점을 합산해 남녀 각각 8명씩의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이 중 4월에 개최되는 최종 1차(예천), 2차(원주) 평가전을 통해 리커브, 킴파운드 남녀 각 4명, 총 16명이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잡게 되고, 양궁 종목에 걸려있는 총 10개에 메달에 도전



안산(광주여대·가운데)이 지난해 10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제공>

하게 된다. 선발된 남녀 1~8위 선수들은 내달 4~8일(예천), 17~21일(원주) 2차례 순위 평가전을 통해 상위 3명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쥔다. 이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올해 첫 국제대회인 세계양궁 월드컵 2차대회에 출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선발전을 통해 경기장 제반 시설을 점검, 오는 5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양궁 2차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차민수 생애 첫 '꽃가마'

###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 같은 팀 오창록 3-1 제압

영암군민속씨름단 차민수(21)가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에서 생애 첫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차민수는 16일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같은 팀의 오창록(28)을 3-1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아대학교를 중퇴하고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입단한 차민수는 이로써 생애 처음으로 한라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결승 상대는 11차레나 한라장사를 지낸 '최강자' 오창록이었으나, 차민수는 거침없이 기술을 몰아치며 '신의 반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 지는 법을 잊었다

## 나달, ATP 파리바오픈 16강 오픈카에 2-0 승을 시른 18전 전승... 8강 상대 '5승3패' 우위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 테니스 기지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 단식 16강전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엘리 오펠카(미국)를 상대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4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2022시즌 18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나달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858만4055 달러) 대회 7일째 단식 16강전에서 라일리 오픈카(17위·미국)를 2-0(7-6(7-3) 7-6(7-5))으로 물리쳤다.

올해 1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나달은 올해 치른 경기에서 18전 전승을 거뒀다.

1990년 이후 시즌 개막 이후 최다 연승 기록은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2011년에 달성한 41연승이고 2위 기록 역시 조코비치의 2020년 26연승이다.

4대 메이저 바로 다음 등급인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 단식 최다승 기록을 401승을 늘린 나달은 닉 키리오스(132위·호주)와 준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나달과 키리오스의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나달이 우위를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조코비치, 로저 페더러(27위·스위스)는 불참했다.

현재 세계 1위 나달 메드베데프(러시아)도 3회

전에서 탈락해 나달이 시즌 개막 후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함께 열리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836만9천455 달러) 단식 4강에는 이가 시비온테크(4위·폴란드)와 시모나 할레프(26위·루마니아)가 선착했다.

시비온테크는 매디슨 키스(29위·미국)를 2-0(6-1 6-0), 할레프 역시 페트라 마르티치(79위·크로아티아)를 2-0(6-1 6-1)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둘의 상대 전적은 할레프가 2승 1패로 앞서 있다. /연합뉴스

## 순천시청 유도, 전국대회 2연승

### 순천만국가정원컵 단체전 우승... 개인전도 활약

순천시청 유도팀이 2022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하 순천만정원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 유도팀(김지정·신지영·김혜미·박다솔·양서우)은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순천만정원컵 여자일반부 단체전(팀 간 5전 3승제) 결승에서 고창군청을 만나 신지영, 김지정, 김혜미가 깨끗한 한판승을 거두고 정상에서 포효했다.

순천시청은 8강에서 충북도청을 만나 김혜미 한판승, 박다솔·김지정이 기권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는 성동구청을 만나 김지정·신지영이 한판승을 거둔데 이어 김혜미가 절반승을 따내 결승에 진출했다.

순천시청은 개인전에서도 값진 메달을 일궈냈다. 우승후보 박다솔은 -52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정보경(대구시청)을 만난 박다솔은 한판승을 거두고 절반을 따내 뒤 절반을 추가해 한판승으로 승부를 마무리지었고 결승에



순천만정원컵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순천시청 유도팀. 김혜미(왼쪽부터), 신지영, 양서우, 허석(순천시청), 박다솔, 김지정. <전남도체육회 제공>

서는 정예진(인천시청)을 지도 3개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혜미는 -70kg급 준결승에서 박다솔(성동구청)에 절반승을 내주고 동메달을 기록했다.

+78kg급에 출전한 순천시청 신지영은 결승에서 박상범(용인대)에 패해 은메달을 땀다.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감독은 "최근 제주컵에 이어 창단 후 두 번째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뜻깊다"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 도움을 주신 분들과 팬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

### 전국 선수권대회 25~27일 고양서

제42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가 25~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5월 열리는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과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올해 예정된 스포츠클라이밍 국제 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무대다.

'암벽 여제' 김자인과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출

전했던 서재현, 천종원 등 간판급 스타 선수들이 출출동한다.

대회는 남녀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리드와 볼더링이 합쳐진 콤바인 종목과 스피드 종목으로 치러진다.

25일에는 남녀 일반부 스피드 예선·결승이 치러지고, 26일에는 남자 리드와 여자 볼더링 예선·결승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남자 볼더링과 여자 리드 예선·결승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2관 더 배트맨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블랙라이트
- 4관 스펜서
- 5관 문풀
- 6관 문풀
- 9관 더 배트맨, 스펜서
- 7관 세네카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메리 미, 안테벨름
- 8관 세네카를 극장판 주술회전 0, 언차티드, 유어 러브 송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뮤지컬 앤Anne**

GAC기획공연 포커스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커스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